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28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음력 12월 6일)

17일 휴일임에도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가운데 상당수 점포들이 문을 열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실감케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사회적 거리두기·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개점휴업 속 소상공인들 한계점 도달

지하상가 방문객 60% 급감
식당·관광업계 휴폐업 속출
신구간 앞둬 임대료 등 걱정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 관련기사 4면

최근 제주지역에서 종교시설·사우나·학원발 3차 대유행의 가속화로 지난해 11월부터 대부분 점포들은 석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일인 17일 제주시 제주중앙지하상점가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한산했다.

심지어 점심시간임에도 큰 식당에는 종업원은 3명인데 손님은 1명밖에 없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점포들은 일요일이지만 아예 휴업을 선언하거나 문을 열지 않은 곳도 여러 곳 보였다.

그나마 추운 날씨 탓에 실내인 지하상가는 인근의 중앙로상점가와 칠성로상점가보다는 나은 형편이다.

조정근 지하상가 관리팀장은 "평상시보다 고객이 60% 정도 줄었고, 최근 관광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주변의 상가에서 들어보면 하루에 1000원 어치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손님들이 없어 한두시간씩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호 지하상가 조합 이사장은 "지하상가는 원래 연중 휴일이 없었고,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작년 한라사우나발 확진자로 인해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원도심에 오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폐업과 휴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2.5단계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끝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져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것이 상인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전했다.

인근의 상가에서 만난 의류판매업체 점주 A씨는 "장사도 안되는데 앞으로 신구간을 앞둬 건물 임대료 마련이 걱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중앙로 인근의 상점가 등은 평년 이맘때면 설맞이나 새학기를 준비하는 가족단위 고객들로 호황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지난해 연초처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서운 겨울나기를 이어가고 있다.

동문재래시장도 이날 제주시오일장이 열리고, 관광객 방문도 크게 줄며 스산한 모습을 보였다.

식당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과 휴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도내 등록 외식업체 1만2400여곳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견디지 못해 1027곳(8.3%)이 폐업하고, 511곳(4.1%)이 휴업했다. 주인이 바뀌는 사례도 많았다.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도 눈덩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숙박업(14곳), 휴양펜션업(4곳), 유스호스텔(7곳), 농어촌민박(578곳) 등의 휴·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하며 향후 한달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피해 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설 앞둬 감귤가격 안정화 총력

최근 노지감귤 가격 상승세
도매시장서 8000~9000원대
비상품 불법유통 집중 단속

제주 노지감귤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노지감귤의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전국 9대 도매시장에서의 노지감귤 유통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까지 제주 노지감귤의 평균 가격은 5㎏ 평균 78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9% 상승했고, 2018년 대비 4% 상승했다.

이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5일 농축산식품국 부서장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노지감귤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 마련 이후 5㎏ 평균 5900원이던 도매시장 가격이 최근에는 8000~9000원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농가들과 함께 대과(2L) 상품 시장격리,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홍보 노력에 더해 최근 이어진 한파로 출하 물량 조절이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설 명절 전까지 노지감귤 대부분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출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파로 언 피해를 입은 감귤은 철저히 선별 출하해 저급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12월 18일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데 이어, 점검 단속반을 편성하고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택배 전담반은 지난해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와 관련 단속을 통해 144건(비상품감귤 136건(139t), 기타 8건(7t))을, 2019년에는 74건(비상품감귤 63건(25t), 기타 11건(11t))을 적발했다.

한편, 도는 올해 감귤산업 재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과실 전문생산 단지 기반 조성, 거점 APC 시설 보완 등 FTA기금사업에 285억원(국비 106억, 지방비 179억)을 배정하는 등 총 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이번주도 추위… 19일 다시 영하권

대설주의보 해제됐지만
오늘 강풍예비특보 발효

주말 제주지역에 다시 눈을 동반한 추위가 찾아와 일부 산간도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산지와 북부, 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주요 지점별 적설량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어리목 7.6㎝, 산천단 4.8㎝, 표선 3.6㎝, 성산 수산 1.8㎝, 대흘 1.3㎝, 추자도 0.4㎝ 등이다.

눈 구름은 잠시 물너갔지만 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1~4℃에 머물다가 오후 들어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9~10℃까지 오르겠지만 이튿날인 19일부터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에서 영상 2℃ 사이로, 낮 최고기온은 6~10℃로 예상된다.

또 18일 오전 9시부터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닐하우스, 간판 등 시설물 등의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8일 오전을 기해 제주에 강풍예비특보를 발효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 제주지역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와 23일 오전부터 24일 오전 사이 제주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